

전남도, 협업 강화 ‘지역대학 위기’ 극복한다

김영록 지사, 지역대학 총장과 정책 간담회

상생협력추진단 운영·전담 조직 신설 추진

전남도가 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지역 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김영록 도지사, 장석웅 도교육감, 유근기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국성군수), 박성현 광주·전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장(목포해양대총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대학 총장과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19일 문금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지역-대학 상생협력추진단(T/F)’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과제와 현안을 구체화해 법령개정, 정책건의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은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대학 지원 전담조직 신설 ▲지역인재 채용제 및 현장실습 중소

기업 지원 마련 ▲‘지역상생형 대학’ 운영 등을 건의했다.

박성현 협의회장은 “대학 혼자 힘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려운 만큼 지자체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자”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지역 대학과 협력사업을 발굴, 확대해 지역과 대학이 상호 발전하는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대학의 위기에 지역 사회가 공감하고, 지역 혁신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 지역 현실 맞춤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는 협업체계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전남도는 앞으로 상생협력추진단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전담조직 신설과 지역대학 졸업생 취업 제고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지역대학 총장과 정책간담회’에서 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지지 서명식을 마친 총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간담회 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 남중권 유치를 위한 대학 총장들의 유치지지 서명식도 진행됐다. 광주·전남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전 세계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COP28 개최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남해안 남중권이 대한민국의 탄소중립을 선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길용현 기자

장재성 시의원,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표발의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1)은 2일 ‘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 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

주택 비율이 전체 공동주택의 91%인 906단지, 39만여 세대를 차지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안은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리모델링 초기 사업 준비부터 시행까지 공공지원을 통한 사업의 단계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 의원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사업이 재개발·건축에 치중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후 공동주택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자문지원을 통한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상임위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애란 기자



주목받는 전남도의회 조례

‘은둔형 외톨이’ 지원 물꼬 튼다

최선국 “실태조사·맞춤형 지원”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져 주목받고 있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 전남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정의했다.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가장 최근 실시된 ‘청년 사회경제적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5만여명의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가 추진된다.

또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을 위한 자립교육 및 직업훈련, 문화·예술·체육 활동과 자조모임, 상담 및 교육 지원도 가능해진다.

최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를 당사자



나 가정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사회적 공론화와 함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며 “조례 제정을 계

기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당사자나 그 가족이 좀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동학혁명 기념행사 전남 개최 근거 마련

윤명희 “민주주의 뿌리 혁명정신 계승”

앞으로 장흥 석대들과 장성 황룡강 등 전남 소재의 유적지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됐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전남 상임위를 열고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사적지를 광의적 표현인 유적지로 변경했고, 전남 소재의 동학농

민혁명 유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전남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한 사적지가 장성 황룡강과 장흥 석대들 등 2곳으로 국가 사적지 4곳 중 절반이 있다”며 “전남을 동학농민혁명의 고장으로 인식하고 활동인물과 기록물을 보존할 수 있는 총체적인 기념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를 통해 자랑스러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살리기 위해



국가 사적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의 정신

을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전남 ‘청소년 부모가정’ 생활안정 돕는다

이혜자 “육아·교육 등 복지 증진”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전남지역 청소년 부모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일 상임위를 열고 이혜자 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청소년 부모가정 지원 조례안’을 의결, 오는 10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로 이뤄진 ‘청소년 부모가정’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했

다. ‘청소년 부모’를 ‘청소년’이자 ‘부모’이며 ‘가정’의 주체로 규정, 출산·육아·교육·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출산·양육·교육 등 최소한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통해 청소년부모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인구절벽, 지방소멸의 시대에 출산과 양육은 그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



를 낳고 기르는 청소년부모들을 우리 사회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민군의 약속을 겪고 있는 청소년부모가정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출향 도민들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혜택

박문옥 “유동인구 확대 촉진 등 기여”

출향 도민에게 전남지역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진다.

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남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출향 도민들에게 전남도와 시·군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출향도민을 예우해 애乡심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고향과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인구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관계인구를 활용한 유동인구를 확대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기획행정위는 이날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5·18 관련자 및 관련 단체 대표자의 참여 확대 등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두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5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정근산 기자

M 전남매일 함께육아 캠페인

열정의 60년
더 나은 미래로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면 '든든' 육아

본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저출산극복사회연대회의
 인구보건복지협회광주전남지회가 함께합니다

매년 7월 11일 인구의날